일본의 면 방적 - 2/4분기 소재 판매는 호조이나, 원유고 등 이익 압박

금년(2006년)의 2/4분기(4~6월)에 있어서 면 방직은 소재 판매가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면방 각사 모두 시황은 결코 좋지는 않았다는 견해와 일치하면서도 독자 소재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다만 원면 값이나 원유 값들이 올라 제조 코스트가 오르고 있는데, 뜻대로 원단 값에 반영시키지 못하여 이익면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소리도 적지 않다.

닛신보의 2/4분기 실적은 전년과 비교하면 보합 상태이다. 셔츠 소재, 유니폼이 전년보다도 수입이 늘었으나 데님, 침장은 보합 상태이다. 셔츠 소재는 고기능 소재인 "논케어(Non-care)"나 "쿨비즈(Cool-biz)"용 소재의 출하가 늘었다. 유니폼에 대하여는 어패럴의 동향이 좋지는 않으나, 소재 메이커로부터의 원단 출하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나가고 있다고 한다.

구라보는 금년이 중기 계획의 최종 연도가 되어, 섬유 사업도 수입 증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라보는 각 분야마다 증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4~6월은 주력인 캐주얼, 데님, 유니폼이 모두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다. 유니폼은 정번 소재 외에 방염 소재인 "브래바노" 등이 늘어났다. 또한 겨울 상품이 잘 움직여, 시장 환경이 좋았던, 1~3월에 이어 순조롭게 팔렸다. 제조업의 노동 인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확실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또한 시황이 악화한 영향이 염려되던 데님에 대하여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후지보 텍스타일은 직물·니트·제품 사업 모두가 계획을 웃도는 실적을 보였다. 다만 ① 중유 값이 오르는 등으로 제조 코스트가 상승 ② 일본 내 움직임이 기대에 못 미쳤다 - 등으로 이익이 좀 어렵다고 한다. 시키보는 의류 섬유 생활 자재가 모두 거의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하고 있다.

다이와보노이는 거의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실, 텍스타일이 여전히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용, 생활 자재용이 모두 더 이상은 줄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확대 경향이 있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봉제한 트렁크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외는 오프 시즌이 되어 T-셔츠 등은 8~9월부터 판매 부진이 본격화할 것이다. 7~9월에는 많은 면 방적들이 시장 환경이 호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기 내놓고 있는 전략을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소재 개발에서는 원면의 특성이나 방적의 솜씨, 제직, 편성, 가공이 일관되게 차별화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구라보는 이제까지의 주력은 그런대로 가격이 안정된 존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고급 시장을 생각하면서 소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앞을 내다보고 있으며, 상류가 변하는 데 따라 새로운 수법을 찾아 내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또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제품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닛신보는 2차 제품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 시키보는 상재를 특화하면서 제품 사업을 확대하려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